

조선후기 사회적 병폐 치료를 위한 글쓰기

연암 박지원과의 대화

허경진

목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열하일기》나 몇십 편의 글만으로 어느 세월에 사회개혁이 이뤄지겠나. 그래서 벼슬길에 뛰어들어 조금 시험해봤네. 내가 집권자들에게 영합했다라면 개혁정치를 실행할 수 있었겠지만, 막비운수라! 이 나라의 운수였던 걸 어찌하겠나.”

연암 박지원.

내가 석사과정에서 공부할 무렵 지도교수인 연민 리가원 선생께서는 “성전연벽(惺顛燕癖)이란 글을 벽에다 걸고 지내셨다. “성소(惺所) 허균에게 얹어지고 연암(燕巖) 박지원에게 고질병이 들었다”고 했으니, 자나깨나 허균과 박지원을 좋아해 그들에게 온통 빠져 지낸다는 뜻이다. 선생님께서는 그 가운데 허균 하나를 내게 떼어 주셔서, 나는 《허균시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썼다.

나는 그 무렵 허균의 전기를 쓰고 있었는데, 한번은 꿈속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미리 읽은 자신의 전기에서 마지막 부분이 잘못 됐다며, 자기가 꿈꿨던 이상국가를 설명 해주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1983년에 간행된 허균의 첫번째 전기는 결국 왕조실록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올해 허균의 전기를 다시 썼다. 돌베개에서 그의 평전을 청탁받은 덕분에 몇달 동안 허균에게 빠져서 지냈는데, 이번에는 꿈 속에서 영동하게도 박지원을 만났다. 그래서 여러 의문거리를 서슴지 않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조선후기 병폐의 치료처방

문천(허경진)—저는 선생의 글이 조선후기의 사회적 병폐를 고치려고 제시한 처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학생들과 함께 선생의 소설을 읽고, 《연암 박지원 소

설집》을 번역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 원고를 쓰면서 제가 끝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선생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면서 자신의 글을 보여드렸던 <우상전(虞裳傳)>의 주인공 이언진(李彦璵)을 왜 그토록 멸시하셨나 하는 점입니다. 그가 일본에 사절단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벌써 시집을 간행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젊은 세대를 겁내 억눌렀던 것은 아니신가요?

연암—<우상전> 끝에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던가? “내 일찍부터 마음 속으로 혼자서 그의 재주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보잘 게 없다’는 말로써 그 날카로운 기운을 꺾어버렸다. 내면에는 ‘우상의 나이가 젊으니까, 차분히 길을 잡는다면 좋은 글을 지어서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우상은 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이야. 내가 그의 전기를 지어서 남긴 것만 보아도,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겠세.

문천—그건 선생의 변명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시를 선생에게 보여주며, “오직 이 사람만이 나를 알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은 “이건 남인 놈의 가느다란 침이야. 너무 자질구레해서 보잘 게 없어”라고 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우상은 “내 어찌 이런 세상에서 오래 버틸 수 있으랴” 하고 탄식하며 두어 줄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은 스물일곱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우상은 결국 선생께서 죽인 것이지요.

저는 선생의 글을 “조선후기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우상은 그런 선생까지도 당대의 병폐 가운데 하나로 여겼을 것입니다. 선생은 탐골 집으로 모여드는 제자들에게 밥까지 직접 지어주며 며칠씩 학문에 대해 논했지요. 그런 선생마저 당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해, 충격 끝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선생은 <허생>에서 능력 있는 선비들이 당쟁 때문에 소외되는 현실을 비판했지만, 선생 자신이 결국은 노론이라는 소속 당파를 넘어서지 못하고, 아까운 시인을 죽인 거지요. 연암—그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이 나도 사실은 아쉬웠다네. 더구나 그는 죽기 전에 자기 글을 모두 불태워 버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를 알아줄 사람이 더욱 없을 것 같아, 그의 전기를 지어준 거지. 그것만으로도 내 잘못은 용서받지 않겠나.

천문학 등 과학에 대한 관심

문천—우상의 재주를 알본 것은 그가 남인 가운데서도 가장 재주와 경륜이 뛰어난 이용휴의 제자였기 때문이 아닌가요? 선생의 실학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용후생학뿐만 아니라 북학과 서학, 그리고 주자학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청나라에 갔을 때 서양 선교사를 만나려고 애썼으며, 실제로 천주당을 찾아가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서학을 사학(邪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체제공 다음으로 재상에 올라 정조 임금을 보필할 이가환과 그의 아버지 이용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연암—내가 관심을 가졌던 서학은 천주학이 아니라, 역법이나 천문학·건축학 같은 과학 일체. 천주학을 하는 자들은 유교의 윤리를 저버리는 자들이니, 그들과는 한 나라에 함께 살 수 없는 법일세.

문천—선생은 우리나라에 천주학을 처음 들여온 자가 허균이라고 하면서, 지금 서학 하는 자는 모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서학을 처음 들여온 허균이 역적으로 죽었으니, 사학을 하는 자들은 모두 역

적”이라는 논리는 너무 비약이 심한 게 아닙니까. 성리학이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했기에, 그 이념을 서학으로 대체하려 했던 그들의 생각이 선생보다도 앞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산은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 때문에 18년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써서, 우리 후배에게 학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선생도 중년에는 벼슬에 뜻이 없어 과거시험도 보지 않고 후배들을 가르치며 글만 썼는데, 말년에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현감이나 부사 정도의 외직으로 돌았으니, 백성들을 위해서 큰 경륜을 펼친 것도 아닌 셈이지요.

연암—내가 글만 쓰던 시절의 쓰라린 심정은 후배 남공철이 박남수를 위해서 지어준 묘지명에도 잘 나타나 있네. 당시에 젊은이들이 《열하일기》를 많이 읽어서, 과거시험지 에까지 내 문제를 본뜬 답안지가 나올 정도였다네. 그런데 정조께서는 《열하일기》를 읽어보신 뒤에, 옛스럽지 못한 내 문제가 글공부하는 젊은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염려하셨지. 어느날 내가 이덕무·박제가와 함께 박남수의 서재에서 놀았는데, 마침 달빛이 밝기에 《열하일기》를 낭독했지. 이 글은 내 제자와 후배들이 다 좋아하던 글이 아닌가. 다들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남수가 갑자기 내게 대들며 따졌다네.

“선생의 글이 비록 훌륭하기는 하지만, 경학의 본도에 맞는 고문체(古文體)가 아니고, 이야기책 투의 글일 뿐입니다. 이 《열하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장이 모두 고문을 버리고 이야기책 투의 글이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됩니다.”

나는 남수의 말을 묵살하고 그냥 낭독해 내려갔는데, 남수가 술 취한 기분에 《열하일기》에다 촛불을 대서 불태워 버리려고 했네. 남공철이 급히 말려서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나는 성나서 드러눕고 말았지. 이튿날 아침에 나는 남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네.

“남수야!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뜻을 펴지 못하고 궁한 지가 이미 오래 됐다. 그래서 마음속의 크고 작은 불평들을 모두 문장에 의탁해 내 멋대로 썼을 뿐이다. 난들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좋아서 그랬겠느냐? 그대들은 모두 아직 젊고 재주도

책을 먹는 도깨비 개보



김승태 지음/한효정 그림
국배판 변형 /전면칼라/36쪽/값 7,500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린시절 갖게 된 습관은 그 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을 갈 좋은 습관을 갖게 합니다.

" 책을 읽는 습관은 어떨까요? "

어린 시절 읽은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배우며 꿈을 키우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영커뮤니케이션이 드리는 선물!



'책을 먹는 도깨비 개보'

아이들을 괴롭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던 심술꾸러기 도깨비 개보가 독서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도깨비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독서를 통하여 변화된 내면, 즉, 인격의 성숙을 의미한다. 재미있는 소재인 '도깨비'를 등장시켜 자칫 아이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독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00-391 서울시 중구 정충동 1가 38-93 장충빌딩 B동 3층
출판부 T.2264-7211~3 출판유통사업부 T.830-8566 F.830-8567 도모사업부 T.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이름다운 삶 · 좋은 문화를 전하는 잡지
리더스 라이프
Reader's Life

- 커비스토리 중국에 파견된 EGM에 하나님의 대사 네드 그레함
- 아마존의 선교사들
- 달리는 트럭에 복음을 싣고
- 특집 · 성공의 열쇠

- 영한대역 기사 어느 버스 운전기사의 눈물 물라포 씨의 아름다운 숙녀
- 좋은 문화 만들기 · 인터넷 음란 사이트
- 화제의 인물 인터뷰 · 김순권

1999년 7/8월호
가격 2,500원

◆ 전국 유명서점과 기독교 전문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의 글이
조선후기의 사회적 병폐를
고치려고 제시한 처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학생들과 함께 선생의 소설을
읽고, 《연암 박지원 소설집》을
번역해 내기도 했습니다.”



허경진 교수.

많으니, 문장을 배우더라도 내 문체는 답지 마라. 정학(正學)의 진흥에 힘써서 나라에 이바지하라.”

그런 뒤에 별주를 들었지. 큰 술잔을 들이 마시고는 그만 몹시 취하고 말았다네. 훌륭한 임금을 만나면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고, 어지러우면 몰려나 제 한 몸을 두는 것이 우리네 선비들의 몸가짐이 아니었던가. 오랜 만에 임금다운 임금을 만났기에, 나도 벼슬 길에 나아가 내 포부를 펴보고 싶었다네.

안의현감을 5년 지낸 동안, 나는 그곳에서 40여편이나 글을 썼지. <열녀 함양 박씨전> 만 해도 그렇지. 남편의 삼년상을 마치던 날 약을 먹고 자결한 박씨부인을 위해서 지은 전기지만, 나는 과부가 반드시 절의를 지켜 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네. 조선후기의 열녀는 사회가 죽게 만든 점도 있지. 이런 글도 내가 현감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네.

나는 북경에서 체득한 신지식을 공장(工匠)에게 가르쳐, 베를 · 양수기 · 물방아도 새롭게 만들고, 관아의 부속건물도 벽돌로 만들어 보았지. 흥년에는 굶주리며 떠돌아 다니는 백성 1,400명을 먹여 살리기도 했으며,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던 곳에다 둑을 쌓아 홍수를 막아 주기도 했지.

사회개혁 위한 실천

내가 한 일이 자네 보기엔 조그만 일이었지만, 나도 고민 끝에 나섰던 결세. 허생도

“조금 시험해볼 게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허균도 <호민론(豪民論)> 같은 글을 짓다가, 선비들에게서 호응이 없자 <홍길동전> 같이 선동적인 소설을 짓고, 그래도 사회개혁이 이뤄지지 않자 직접 혁명에 나섰다. 역적으로 몰려 죽은 것이 아닌가.

《열하일기》나 몇십 편의 글만으로 어느 세월에 사회개혁이 이뤄지겠나. 그래서 벼슬길에 뛰어들어 조금 시험해본 결세. 다른 목민관들도 나처럼 다스렸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빨리 개혁됐을 테고, 내가 집권자들에게 영합했다라면 좀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개혁정치를 실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막비운수(莫非運數)라! 나 한 몸의 운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운수였던 걸 어찌하겠나.

문천—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생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열하일기》를 새로 쓰셔야겠지요?

연암—책을 다시 쓰다니!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허생처럼 부피가 큰 농산물을 사고파는 장사가 아니라, 벤처기업을 육성할 결세. 내가 허생에게 장사시켰던 안성에 결국 전자공장이 들어서지 않았다. 내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땅은 이백년 전에 잡아 놓았으니, 이제는 젊은 후배들을 모아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몽유록(夢遊錄)의 형태로 꿈속에서밖에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